

圖書館學에서의 比較研究方法論

A Study on Methology of Comparative Stud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남태우 **

초 록

比較(Comparative)란 相異性과 類似性을 相互 直接的인 並置로 두어야 하고, 相異性은 社會環境의 모든 積
 절한 諸部面에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原理를 圖書館學에서 도입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이 比較도서관
 학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圖書館學에서의 比較研究方法論으로서 i) 敘述法(description), ii) 解析法(interpretation),
 iii) 並列方法(juxtaposition), iv) 比較(同時比較)法(comparision)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understand of the, definition of, componativelibraianship and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study in librarianship.

Comparative librarianship may be defined as the systematic analysis of library development,
 practices, or problems as they occur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most usually in different coun-
 trie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historical, geographic,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determinant background factors found in the situations under study. Essentially
 it constitutes an important approach to the search for cause and effect in library development, and
 to the understanding of library problems.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study in librarianship includes four steps; i)description, ii)inter-
 pretation, iii)juxtaposition, iv)comparison.

1. 서 론

圖書館學을 研究하는 方法論으로서는 歷史學의
 方法, 社會學의, 情報學의 方法, 統計의 方法, 事例
 研究(case study), 서베이(意見調査나 文獻
 調査), 實驗的 方法, 比較方法 및 이러한 方法
 論들을 並行하는 方法등 多樣하다.

上記의 이러한 研究方法論들 중 比較에 의한
 方法은 研究方法으로서 認識되기 이전부터 本能
 的으로 사용해온 高찰방법이라고 하겠다.

比較法은 하나의 學問的 方法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觀點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實驗이나 定
 量的 測定이 곤란한 社會科學과 人文科學分野의

* 이 연구는 198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研究方法論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比較神話學, 比較民俗學, 比較法學, 比較教育學, 比較心理學, 比較言語學, 특히 比較文學이 그들로서 人文社會科學 分野에서 比較法을 學問的研究方法으로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을 정도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研究方法論인 것이다.

比較法을 圖書館學方法으로 채용할 때 比較圖書館學이 成立되는 것이다. 이렇게 成立된 比較圖書館學의 主題는 多様な 文化的 環境에서 司書와 관련된 기관들이 된다. 또한 比較圖書館學은 서로 다른 地域과 政治의 分野에서 發見되는 理論 및 實際에 관한 資料를 취급하는 것이며, 主題로서 研究方法이기도 하다.

本稿에서는 圖書館學의 多様な 研究方法論중에서 比較法을 導入한 比較圖書館學의 側面에서 그 方法論을 다음과 같이 考察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 比較法의 原理에 대해서 糾明하고, 3장에서는 比較圖書館學의 現象을 考察하며, 4장에서는 圖書館學에서 比較研究의 方法論順으로 糾明해 보고자 試圖되었다.

2. 比較法의 原理

人間과 人間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相異點은 人間の 基本的인 類似點을 發見하므로써 밝혀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 類似點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일정한 典型과의 관련하에서 考察될 때 상세하게 밝혀지게 된다. 限定的일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우선 우리가 아는 것과 自愛로부터 類似點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共通된 經驗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중에 自身이 있음을 認識하게 될 때 友情과 愛情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社會科學에 있어서 比較研究를 할 수

있는 情緒的基礎이고 學者의 眞理探究에 대하여 刺戟을 가해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세기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世界的 규모로 전개되는 社會 및 政治的變化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文化的 混合(mingling of cultures)은 比較研究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는 실상이다(Hall 1963,1)

比較的方法(comparative method)은 社會科學의 많은 部面에서 중요시해야 할 간절한 것으로 評價되는데, 이것은 19세기에 조성된 現象 즉 言語學 및 生物學의 革命的進歩에서 벗어난 直接的結果라고 할 수 있다.

1876년 칼커탈(Calcutta)의 高等法院判事인 존스(Jones)경은 산스크리트, 그리스어 및 라틴어와 몇몇 근대어사이에 ‘현저한 類似性’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들 言語는 모두 ‘어느 共通의 源泉에서 生成되어 나온다’는 것을 시사하였다(Pedersen 1931, 18). 그러나 그의 發見은 30년후에 보프(F. Bopp)와 라스크(R. Rask)의 첫번째 貢獻이 일반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별다른 結實을 맺지 못하였다. 뒤이어 그림(Grimm)의 독일문법(German Grammer)이 1819년부터 1832년까지에 걸쳐서 발표되고, 1833년에는 보프(Bopp)가 ‘比較文法’(Comparative Grammer)을 출판하게 되었다. 또한 예일대학의 산스크리트 및 比較言語學教授였던 휘트니(W. D. Whitney)가 ‘言語의 生命과 成長’(The life and growth of language)이라는 문헌을 저술하고 나서는 言語形態에 관한 比較研究의 직접결과인 새로운 科學이 탄생한 것은 의심할바 없게 된 것이다(Whitney 1875,315).

한층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19세기 生物學에서의 진보적충격이다(Locy 1908). 즉 큐비어(Cuvier)의 ‘比較解剖學講義’(Les-

ons d'Anatomie Comparée) 및 미국의 코우프(Cope)의 저작은 비교해부학에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 준 문헌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하여 組織學, 生理學 및 細菌學(Pasteur 1822-1895)이 하나의 科學으로 확립되고 그 모두에서 比較가 두드러지게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발견을 한 것은 生物의 進化에서였다. 린네우스(Linnaeus)가 1735년에 출판한 分類法은 큐비어(Cuvier)에 대하여 한층 더 科學的 意義를 가질 수 있게 개량된 명확한 方式을 제공해준 것이다.

라마르크(Lamarck)는 進化論을 포함하여 生物學上 기초적인 공헌을 해 주었는데 이 때에 生物學에 있어서는 分類法은 이미 生物의 명확한 類型에 관한 다량의 知識을 利用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 되었고, 이것이 科學의 發展을 한층 더 조장시켜 주게 된 것이다. 예컨대, 다윈(Darwin)의 ‘種의 起源’(Origin of Species) 및 ‘人類의 起源’(Descent of Man)을 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 수많은 動物의 構造, 機能 및 特徵에 관한 比較가 포함되어 있다(Darwin 1874, 2)

19세기에 들어서 比較言語學, 比較解剖學, 比較法, 比較政治學, 比較宗敎學등 다양한 ‘比較’ 研究分科가 생겨난 것은 比較研究를 통하여 이룩된 업적의 영향이 침투한 것을 반영한 실상이라고 하겠다.

이로부터 研究의 資料가 더욱 더 많이 수집되어 文化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比較的方法’이라는 용어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現代는 지나치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知識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분과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比較法은 처음부터 言語學, 人類學, 歷史學,

政治學 및 社會學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比較法에 관하여 理論을 구성하는 것은 특히 도전적인 연구행위가 된 것이다.

比較的方法으로 接近하는 연구자는 어느 水準이 중요한 것인가, 어떠한 方式으로 結合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貢獻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個人的判斷에 따라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상이라고 생각된다(Hall 1963, 3). 이러한 성격을 지닌 比較的方法(comparative method)은 하나의 接近方法이라는 立場과 다른 하나는 社會科學 즉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라는 相反된 理論으로 분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의 立場을 각기 구별하여 다음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比較法은 比較方法이라는 理論

比較法은 方法 즉 ‘比較의 方法’(the method of comparison)이라는 理論이다. 이 이론은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 1회 比較國際法會議에서 폴록크(Pollock)가 제시한 것으로서 ‘比較法은 고유의 科學이 아니라 比較의 方法을 法(law)중에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드 프란시스시(De Francisci)도 비교법은 方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외의 어떠한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한 대륙에서의 최초의 학자이다.

(De Francisci 1921, 246). 그리고 가터리지(Gutteridge)도 ‘比較法’이라 함은 研究調查의 方法을 가르킨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比較法은 獨立한 法의 分科 또는 部面을 가르키

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해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만일 ‘法’이라고 하는 용어를 規則의 결정체로 이해한다면 인간관계 또는 去來를 規制하는 獨立의 規則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明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Gutteridge 1949, 1).

그리고 比較法이라는 것은 어느 特定한 研究, 調査의 方法에 첨부된 편의상의 표찰에 지나지 않는다(Gutteridge 1949, 41)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그의 理論은 比較法이 하나의 方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比較는 보통사람이라 하더라도 ‘選擇的 決定’을 할 때는 의심할 바 없는 尙상 사용하는 方法이다.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比較하는 사람(comparatist)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칸다나비아의 哲學者 호프딩(Höfding)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比較한다는 것, 즉 相異點과 類似點을 발견하는 것이다(Castberg 1960, 4).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부연적인 설명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가터리지가 내린 比較法の 유일한 性格科明이 科學的 方法 및 日常的 思考에 類似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의 理論은 배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시사한다면, 그러한 말은 결코 정당하거나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의 理論을 分明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比較法歷史의 흐름속에 놓고서 오늘날의 對立的인 學說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햄슨(Hamson)교수도 比較的 方法은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法을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이해하기 위한 補助的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Hamson and Plucknett 1952, 10). 다비드(David)교수의 이론은 이러한 暗示의 범위를 넘고 있다. 즉 그도 比較法은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인하지만, 다른 한편 比較研究에는 社會에 관한 知識 및 실제로

文化 전체에 관한 知識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Stone 1951, 325). 그러므로 方法論者들의 比較觀이 社會的 脈絡, 社會的 制度 및 法の 機能에 대한 論及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比較的 方法(comparative method)은 人文社會科學을 연구하고 규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연구적 접근방법에 불과하다는 이론인 것이다. 즉 方法論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2.2 比較法은 社會學(獨立學問 또는 分科學)이라는 論理

이 論理는 2.1에서 언급했던 比較法은 一種의 方法論이다라는 理論과는 反對의 立場으로서, 즉, 하나의 學問的인 論理이라는 주장이다.

이 理論의 核心은 比較法이라는 것이 知識의 한 結集型이고, 하나의 社會科學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比較法の 理論은 살레이유(Saleilles), 랑베르(Lambert) 및 레바-울만(Lévy-Ullman)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또한 쾰러(Kohler), 라벨(Rabel) 등의 연구가 이 比較法觀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Schnitzer 1961, 17-19). 살레이유한테서 배운 랑베르는 比較法の 社會科學的 目的을 인정한 최초의 인물이다(Lambert 1903, 1-3)

라벨도 또한 ‘規則의 社會的 目的 및 적절하게도 機能的인 接近이라고 부른... 이 目的에 대한 有用性’에 관한 연구를 역설하였다.

또한 브라이스(Bryce 1901, 187)도 比較的 方法을 法科學의 한 方法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라인슈타인에 의하면 比較法이라는 用

語는 ‘둘 이상의 實定法體系의 分類學的이거나 分析的인 記述 또는 技術的 적용을 넘는 法的 科學의 취급을 지칭하기 위하여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논급하고 있으며, 그는 이 科學의 취급을 두 개의 領域, 즉 法規則의 機能的 比較와 法的 社會的 機能 一般으로 표현하였다.

이 의미에서 法은 法的 社會學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法的 社會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곧 자기의 이론을 法的 規制 및 法制度의 機能的 比較에 한정시키고 있다(Rheinstejn 1938, 617)

그러나 15년이 경과한 후에 라인슈타는 比較法은 ‘法一般을 考察하는 科學이고 精密性을 추구하는 科學으로서 比較法은 ‘法的 社會學이라는 意味’로 사용하고 있다(Rheinstejn 1952, 98 ~ 99)

이렇듯 比較法은 學問이라는 理論을 전개시켜 주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比較法은 法社會學 또는 法的 科學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주장에 관해서는 적절한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즉 比較法이 단지 法社會學 또는 法的 科學의 다른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째서 특별히 比較法이라는 用語를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比較法이라는 用語의 이와 같은 使用法은 比較에 의하여 얻어진 知識을 比較法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比較法史學 또는 法社會學에 배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方法說論者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된다(Yntema 1956, 899) 方法說論者가 강조하는 주된 점은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이다. 첫째는 比較的 方法을 使用하여 얻은 結果는 方法과 混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같은 結果는 比較法史學 또는 法的 社會學에 이바지하고, 實定法 各 部門의 理解를

깊이 있게 하는 데는 소용이 되지 모르겠지만 比較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David 1950, 5-7) 그리고 셋째는 상기의 議論은 方法說論者의 理論을 거부하고 比較法이 독립된 地位를 가지고 있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David 1950, 8)

結論的으로 ‘比較法’이란 側面을 法社會學的인 면에서 考察해 본 것이지만, 社會科學의 전문야에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견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결국 ‘比較法’이란 學問研究에 있어서 하나의 方法論 즉 比較的方法論을 사용하여 結論을 유도해 내는 입장이 그 하나이며, 다른 편은 ‘比較法’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영역을 이룬 독자적인 ‘分科學’이다라는 論理인 것이다. 상기의 2가지의 理論中 本 筆者는 圖書館學的 入場에서 前者의 理論을 적용, 이해하여 앞으로의 論稿에서 취급하고자 한다.

3. 比較圖書館學的 現象

제 3 장에서는 比較圖書館學的 現象에서 그名稱의 問題點과 또한 이것이 하나의 學問인가, 主題인가 또는 方法論인가를 中心으로 論해 보고자 한다.

3.1 名稱의 發展

3.1.1 比較圖書館學的 側面

比較圖書館學에 대한 名稱問題點에 대해서는 이미 筆者에 의해 규명된 바가 있다(남태우 1983, 191 - 212). 그러나 그 논문이 발표된 뒤 새로운 측면의 발전이 전개되었으므로 그 發展의 過程을 概括的으로 記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으로 類似性과 相異點을 규명하려는 시도였다고 하겠다.

3.1.2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的 側面

1950 년대에 圖書館學研究의 方法論的 立場에서 比較의 方法이 導入된후 1970 년대까지 거의 比較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이 사용되어 왔으나, 1970 년대에는 그 名稱이 점점 變化되는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比較 및 國際圖書館學 혹은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이라는 名稱으로의 變化이다. 그러나 比較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이 完全 쇠퇴된 것은 아니고 混用된 時期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ibrarianship)이라는 名稱을 사용한 代表的 學者들을 年代順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70 년에 세이블과 드야(Sable and Deya 1970)가 國際的이란 用語를 附加시켜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 學問의 研究方法論을 좀더 분명하게 규명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년에 쇼스(Shores 1970)는 比較圖書館學이라는 用語를 사용하면서 1972 년에는 이 用語의 批評의 觀點에서 그리고 확대된 意味로서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기도 하였다(Krzys 1974, 327) 즉 比較圖書館學의 대체용어로서 사용된 것이며, 比較圖書館學이 형성되기 이전에 발전시킬 필요성으로 理論적 및 理論的 下部構造의 토의를 확대시킨 용어로서 사용한 것이다(Krzys 1974, 327).

그리고 1970 년 같은 해에 잭슨(Jackson 1970) 1972 년에는 톰슨(Thompson 1972)이 1974 년에는 크리즈(Krzys 1974)가 그리고 1977 년에는 하베이(Harvey 1977), 단톤(Danton 1977)도 이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적’(comparative)과 ‘國際的’

(International)은 方法論上 類似語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포스킷(Foskett 1977)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980 년 큐레쉬(Qureshi 1980)도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用語의 進化論的 要因은 現在の 圖書館學의 研究추세가 國際的인 性格이 매우 강한 분야이므로 名稱에 ‘國際的’이란 用語를 附加시켜서 轉술한 비교도서관학의 성격 즉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도서관현상에 관한 연구...’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해 준 발전적인 추세의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比較圖書館學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던 많은 學者들이 70 년대에 ‘國際的’이란 名稱을 부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테면 잭슨, 쇼스, 단톤, 포스킷등이 그들인데 그 學問研究의 性格이나 그 방법론이 變化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지 用語上의 問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國際(比較) 및 比較(國際)圖書館學에 대한 크리즈의 定義를 차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國際 및 比較圖書館研究는 解析, 豫則 및 圖書館現象의 調整을 통해 圖書館學을 深化시키려는 最適의 目的을 위하고, 전세계를 통한 多樣한 圖書館實際를 比較하여 圖書館學을 增進시킬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國際間, 通國家間 또는 通文化에서 圖書館現象을 調査·研究하는 총체적용어로 정의해 주고 있다.(Krzys 1974, 327 - 328) 그리고 라이브러리언쉽에서 國際 및 比較研究에 있어서 調査研究는 3 가지 方法으로 說明해 주고 있는데, 이 研究方法은 轉술한 比較圖書館學에서의 研究방법과 유사하다.

즉 1) 地域研究, 2) 事例研究(case studies), 3) 全體分析(total analysis)등으로

우선적으로 比較圖書館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代表的 學者들을 年代順으로 열거해 보면, 최초의 도서관학문헌에 기술한 다네(Dane 1954)를 선두로 하여 콜링즈(Collings 1958), 화이트(White 1964), 포스킷(Foskett 1965), 쇼스(Shores 1966), 해리슨(Harrison 1968), 캠프벨(Campbell 1970), 그리고 심소바(Simsova 1970), 단톤(Danton 1973) 등이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代表的인 定義로서는 콜링즈의 것으로서 그는 比較圖書館學이란 相異한 狀況下에서 (대개는 다른 國家에서) 일어나는 圖書館發展, 實際 또는 問題點들을 體系的으로 分析하되 이를 研究하고자 하는 狀況에서 발견되는 적절한 歷史, 地理,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要因 및 기타 決定的인 背景要因을 감안하여 考察하는 것이라라고 규명하고, 주로 圖書館發展의 因果關係를 追求하고 도서관문제를 理解하는 하나의 중요한 接近方法이 된다고 하였다(Collings 1971, 492) 이 論理에 의하면 比較圖書館學은 도서관학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接近方法(approach method)으로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側面을 다른 상황하의 국가에서 도서관의 제반현상을 분석 도출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콜링즈(Collings 1971, 492)는 比較圖書館學의 研究類型에 대해서 比較圖書館學 文獻에서 發見되는 주요한 3가지 유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 地域研究(Case study)로서 一定國家 또는 地域內에서 圖書館發展에 관련되는 決定的인 背景要素를 감안하여 記述的으로 實態를 調查하고 批判的으로 分析하는 것과, 2) 通國家的 또는 通文化的研究(cross-national or cross-cultural studies)로서 (a) 수개국에 있어서 한 형태의 도서관 예컨대 대학도서관

관에 관한 연구이거나 (b) 2개 이상의 국가에 있어서 (혹은 동일국가에 있어서 相異한 狀況) 圖書館의 選擇의인 問題 예컨대 分類, 自動化, 圖書選擇등에 관한 연구로서 부가적 설명을 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3) 事例研究로서 한 特定國家內에서 한 圖書館種 혹은 圖書館發展의 주된 하나의 要因, 예컨대 司書職教育, 文子解得率, 圖書出版量등을 深度있게 分析하는 일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Collings 1971, 494)

한편 단톤(Danton)의 比較圖書館學에 대한 定義에 의하면 둘 혹은 그 이상의 國家的, 文化的, 또는 社會的環境에서 圖書館, 圖書館體系, 라이브러리언십의 어떤 部面 또는 圖書館問題를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思想的 또는 歷史的關係에서 分析하는 것이다라고 규명하고 있다(Danton 1973, 52) 그는 또한 比較圖書館學의 특징성을 說明해 주고 있는데 比較圖書館學은 圖書館學의 한 部面 한 主題로서 그 自體의 基本的인 方法(比較)과 範圍(通社會的, 通文化的)와 관련학문과의 性格과 目標(類似性과 相異性を 탐구하고 相異性を 解明하고자 하는 試圖)로 특징지워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Danton 1973, 116) 또한 그는 社會科學分野에서 말하는 比較研究의 필수불가결한 要素(比較圖書館學 포함)로서 1) 通社會的 要素(cross-societal element) 2) 資料의 並置(the juxtaposition of data), 3) 實際的 比較(their actual comparision), 4) 解明의 追求(the search for explanation)등의 方法論들을 열거해 주고 있다(Danton 1973, 47-51)

이렇듯 초창기의 比較圖書館學의 現象은 比較라는 方法을 통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통국가적 또는 통문화적 연구유형 대신 전체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체분석의 내용은 통국가적 또는 통문화적 연구방법과 동일한 유형이다.

한편 심소바(Simsova)는 比較 및 國際圖書館學이란 포괄적인 用語에 넣을 수 있는 活動內容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

- 1) 資料蒐集, 研究旅行, 實務訓練 (Data gathering Study tour Field work)
- 2) 書誌的 活動으로 文獻調査, 다큐멘테이션, 번역 (Bibliographical activities ; literature surveys, documentation, translation)
- 3) 研究, 出版 (Research, Publication)
- 4) 國際活動으로서 協力,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國際理解 (International activities ; cooperation,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5) 하나의 主題와 方法論으로서 比較圖書館學의 發展 (Development of comparative librarianship as a subject, methodology) (Simsova 1970, 15-16)

이상과 같이 5가지의 活動事項을 열거하면서 이를 體系的인 研究方法를 利用하여 하나의 學問으로 연구하면 ‘比較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Simsova 1970, 16) 그러나 상기의 부차적인 설명중 ‘하나의 學問으로 연구하면 比較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國際的’이다라는 설명은 理解하는데 모호한 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다.

3.1.3 國際圖書館學의 側面

다음 名稱의 發展은 ‘比較’라는 用語를 除

去해 버리고 ‘國際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의 使用시기이다. 이 名稱 역시 ‘比較圖書館學’ 그리고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의 使用시기와 뚜렷한 時代的 區分으로 確立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단지 學問의 發展의 側面에서의 用語의 使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傾向에 편승한 代表的 學者로서는 로벨스타드(Rovelstad 1978), 하바드윌리엄스(Harvard-Williams 1972), 파커(Parker 1974) 그리고 첸들러(Chandler 1971)등이다.

하베이(John Harvey)는 ‘國際圖書館學’을 가장 包括的인 名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國際圖書館學을 國際的인 關係의 모든 圖書館의 分野를 포함하고 또한 비교도서관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rvey 1973, 37) 그러나 단톤은 이러한 하베이 주장에 논평을 가하고 있는데, 비교도서관학과 국제도서관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定義의 試圖없이 多樣한 活動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anton 1973, 37). 단톤은 또한 國際圖書館學은 사람이나 著書나 혹은 思想에 의해 국경을 넘는 活動을 포함하므로 이는 하나의 力動的인 概念들이다. 국제도서관학은 여러가지 方法의 國際協助, 理解, 交換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司書의 交換, 開發途上國에 대한 지원, 外國圖書館體系에 대한 教育은 국제도서관학이란 용어의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Danton 1973, 54)

하베이는 國際圖書館學은 총칭적인 용어인 동시에 傘形句로서 도서관의 國際關係 全分野와 外國圖書館學의 諸研究를 다룬다고 규정하면서 國際圖書館學은 그 종속범주로서 다음과 같은 3개의 一般的 分野와 4가지의 副次的인 분야

를 포함시키고 있다(Harvey 1973, 301) 먼저 국제도서관학의 1차적 분야 또는 국제도서관학의 종속분야로서는 :

- 1) 比較圖書館學(Comparative library science)
- 2) 外國圖書館學(Foreign library science)
- 3) 國際機構圖書館學(International institutional library science)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제도서관학의 부차적인 분야 또는 외국도서관학의 종속분야로서는 :
 - 1) 地域研究(Area studies)
 - 2) 事例研究(Case studies)
 - 3) 體系的研究(Systematic study)
 - 4) 論題的研究(Topical study)

여기에서 體系的研究란 몇몇 國家에 있어서 다수의 변동요인 혹은 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몇몇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論題的研究는 다수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논제 혹은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단톤의 논평적인 주장이나 하베이의 논리는 用語上에서 오는 混亂을 극복치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로벨스타드(Rovelstad 1978, 136)에 의하면 國際圖書館學이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比較圖書館學’과 混用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學問의 發展의 新傾向에 따라 用語의 變化가 있을 뿐이지, 學問의 本質의인 면이 變化된 相狀은 아닌 것이다.

3.1.4 世界圖書館學(World librarianship)의 發展側面

名稱上의 問題로서 가장 最近에 나타난 用語인 ‘世界圖書館學’(World librarianship)

에 관한 問題이다. 이 名稱을 사용한 대표적인 學者로서는 캐롤(Carrol 1982), 크리즈와 리톤(Krzs and Litton 198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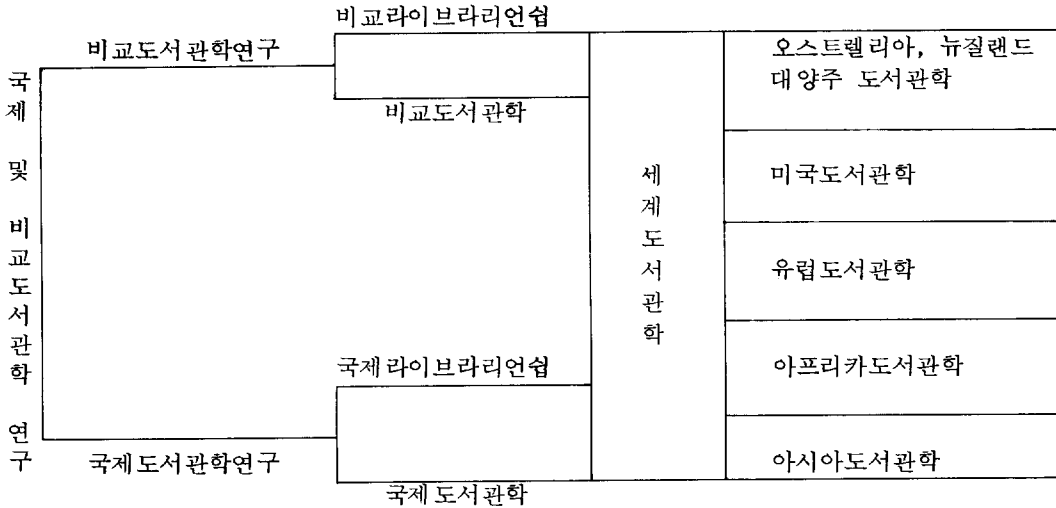
캐롤은 세계도서관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圖書館·情報學百科事典에서 취급한 記入項目의 比較圖書館學과 기타 관련된 3가지 項目, 즉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教育’, ‘國際的關係’ 그리고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研究 研究方法論’이라는 標題로 취급된 이래 充分한 時間이 경과되어 ‘國際的’과 ‘比較的’이라는 用語의 分離에 대한 추세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Carrol 1982, 249) 그는 比較圖書館學과 性格이 다른 世界圖書館學을 國際圖書館學의 자연적인 발전과 ‘하나의 세계(one world)의 개념으로 세계도서관학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는 世界圖書館學의 目的은 情報社會의 重要성과 대부분의 國家에서 도서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一般의인 政策 및 節次의 개발을 통한 圖書館學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觀心을 高潮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國際圖書館學으로 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世界圖書館學에 대한 批判的이고 最新的, 限定的인 記述은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해 試圖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a)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과 超國家的(supernational), 脫國家的(transnational), 그리고 多國家的(multinational)인 用語의 定義 및 연관성하에서 b) 目的 및 有用性, c) 研究 및 出版을 위한 方法論 및 基準, d) 活動과 마찬가지로 文獻의 成長性으로 活動은 그것의 存在를 위한 正當化의 手段으로서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Carrol 1983, 250-251). 이것은 論理的으로 모순을 지니고 있는 理論이라고 하겠다.

世界圖書館學을 國際圖書館學으로 부터 獨立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상술한 4가지의 연구목적은 국제도서관학이나 비교도서관학의 연구테마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

크리즈와 리톤(Krzys and Litton 1983, 4)에 의하면 世界圖書館學과 이와 類似分野間的

연관성을 다음과 같은 圖式으로 說明해 주고 있는데, 이 圖表로서 比較圖書館學,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 國際圖書館學이 世界圖書館學과의 관련성을 理解하는데 좋은 예가 된다. <圖表 I >



<圖表 I > 세계도서관학과 유사분야와의 연관성

위의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界圖書館學은 가장 包括的인 意味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선 學問들의 理論과 哲學을 繼承적으로 개발, 발전, 유지시켜 새로운 學問의 方法으로 탄생시킨 것이라고 하겠지만, 比較方法에 의한 學問의 研究方法의 하나라면 그 名稱은 다소 어색함이 있는 것이며 그 연구내용도 앞선 명칭의 연구과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Krzys and Litton 1983, 5-6)에 의한 세계도서관학 발전단계는 6개의 分명한 국면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3가지의 부

가적인 국면들을 경험하여야 할 것이라고 認識論的 立場에서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發展段階들은 ;

- 1) 圖書館學에 대한 比較原理의 應用
- 2) 圖書館實際 또는 概念의 借用
- 3) 圖書館學에 대한 論文에서의 比較의 方法의 出現
- 4) 圖書館學에서 比較側面의 單行本出版
- 5) 本質의 探索
- 6) 도서관학에서 國際 및 比較研究의 研究方法論을 概括해 주는 메뉴얼출판, 이상과

같이 6 단계의 本質的인 發展的국면으로 설명하면서 附加的 發展段階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7) 이 분야에서 걸작의 출현
- 8) 圖書館學에 있어서 世界 研究의 充分한 개발
- 9) 多様な 論理的 분야속에 分科(discipline)의 解決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은 한편으로는 도서관학(즉, 비교라이브리언쉽)에 대한 比較原理의 적용간에 분명히 구별지움과 함께 사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研究方法論(즉 비교도서관학(comparative library science))으로 분명하게 공식화하여 이 原理를 확대하고 정제시키는 것이 다라고 부언설명하고 있다. 世界圖書館學에 대한 研究分野를 크리즈(Krzys 1983, 27)는 3가지로 구분짓고 있는데, 이들은 1) 地域研究 2) 事例研究 3) 總體的分析(total analysi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방법은 앞서 살펴본 比較圖書館學,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 그리고 國際圖書館學에서의 연구유형과 다른 점이 없는 동일한 형태이다. 이러한 觀點에서도 世界圖書館學의 本質은 역시 國際圖書館 또는 比較圖書館學과의 논점이나 연구방법이 같을 뿐이며, 단지 名稱만이 學問의 研究方法이나 그 성격이 現代감각에 맞도록 불리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國內에서 수십년간에 논의되어온 圖書館學이라는 名稱上의 問題點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하겠다.

끝으로 世界圖書館學의 目的을 크리즈와 리톤(Krzys and Litton 1983, 45)이 논한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잠정적인 目的을 설정해 주고 있다.

- 1) 圖書館學 本質의 分析
- 2) 同一國家內에서 圖書館學 發展過程의 比較
- 3) 世界의 多様な 地域間에서 그들과의 比較
- 4) 世界圖書館學에 대한 보편화의 형성
- 5) 特別한 專門的인 問題點에 대한 “世界圖書館學의 學習”(lesson of world librarianship)의 應用을 위한 可能性의 開發
- 6) 그들 國家內에서 그들 동료들과 海外 圖書館狀況을 論議할 기회를 學生들에게 提供해 주는 일
- 7) 圖書館學實習에 관한 背景情報의 提供
- 8) 순수하게 地域 또는 國家的인 要求라기 보다는 人類의 情報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意思決定으로 특징지워지는 圖書館發展局面인 世界圖書館學(global librarianship)의 發展을 위한 提案의 公式化등이다. 이러한 目的은 물론 단지 提案의인 것이라고 限定的인 說明을 附記하고 있지만 상기의 8가지 목적이 모두 두나라 이상의 도서관문제에 관한 연구방법들로서 비교도서관학, 국제도서관학의 목적과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겠다.

3.2 學問, 主題, 方法論이나의 問題

比較圖書館學이 하나의 學問인가, 主題인가 아니면 方法論인가의 問題點을 규명하여야 할 순서이다. 이제 본 장에서는 상기의 3가지 문제점을 각각 논의해 보고자 한다.

3.2.1 方法論的 立場

단톤(Danton)에 의하면 比較圖書館學은 理論的으로 정확하게 表現한다면 圖書館學의 比較

方法論이어야 하나 이제는 굳어진 慣用語임으로 어쩔수 없다는 자탄비슷한 토로를 하면서 比較圖書館學은 情報學, 書誌學처럼 圖書館學의 종속학문(sub-discipline or sub-field)이 아니라 하나의 方法論 내지 接近法(a method or approach)이다(Danton 1973, 27)라고 하면서 比較圖書館學은 比較人類學, 比較法學, 比較政治論, 比較教育學과 마찬가지로 獨立된 科學이나 學問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圖書館學의 한 部分, 한 分野(a part of discipline, a field)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Danton 1973, 116). 이 주장은 比較圖書館學은 圖書館學의 한 종속학문이 아니라 圖書館學을 研究하는 方法論 내지 接近法이라는 立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見解는 단톤(Danton)이외에도 콜링즈(Collings)의 立場도 유사하다. 그는 比較圖書館學을 하나의 ‘學問的 研究方法으로서’(As a scholarly method of investigation...) 보았으며(Collings 1971, 493) 하베이(Harvey 1977, 296)도 比較圖書館學은 假定이 證明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方法論임과 동시에 하나의 研究分野이고 또한 知識이다라고 그의 立場을 표명해 주고 있다.

3.2.2 主題라는 見解

화이트(White)에 의하면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主題인 동시에 하나의 研究方法論이다(method of study) (White 1964, 13, Danton 1973, 31)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심소바(Simsova)도 比較圖書館學은 圖書館學에서 比較가 可能的한 諸事項을 다루는 하나의 主題이다. 또한 比較方法은 比較圖書館學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主題로서 보다는 事項을 觀察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종종 理解되어 왔다(Simsova 1970,

1)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學問’ 이 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어 論理的으로 자체적인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견해라고 하겠다.

方法論的 立場을 취하였던 단톤(Danton)도 또한 比較도서관학은 圖書館學의 한 部分(a part of discipline), 한 分野로서 주장하고 있다(Danton 1973, 116), 자야쿠루(Jayakuru 1974, 91)도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뚜렷한 그리고 독특한 研究分野로서 그 區分的要素는 國際的이며, 通社會的인 比較에 있다고 하였다.

이상은 比較圖書館이 하나의 主題로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도서관학의 한 주제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3.2.3 하나의 學問的 性格이라는 立場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學問이다라는 立場의 論理問題이다. 캠프벨(Compbell)에 의하면 比較도서관학은 國際圖書館學의 한 종속학문(a sub-discipline)이다(Danton 1973, 33)라고 하였으며, 심소바(Simsova)는 比較도서관학은 根本的으로 포스킷(Fosskett)이 定義한 路線에 따른 比較方法을 利用한 하나의 學問이다(Simsova 1970, 16)라고 규정하고 있다.

圖書館學 專攻文獻에서 比較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의 使用 및 圖書館學 教科課程에서 하나의 特殊主題로서 研究, 教授 그리고 調査로서의 出現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점진적으로 比較圖書館學 分野의 한 ‘主題’로서 그리고 이에 대한 基本的인 目的, 方法論이 취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問題 및 論爭은 1970년 초에 발행된 심소바와 맥키의 比較도서관학 핸드북(Handbook of Comparative Librarianship)에서 부터라고 하겠다(Simsova and Mackee 1970). 이러한 觀點에서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獨立된 學問이다라는 주장인 것이다.

필자는 제 1장 比較法の 原理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장에서 比較圖書館學에서의 比較의 意味는 方法論上的 접근법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現在의 學問의 發展上 比較圖書館學은 하나의 學問的 性格으로서 研究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4. 圖書館學에서 比較研究의 方法論

여기에서 方法論이라고 하는 것은 對象으로서 圖書館現象을 學問的으로 추구하는 方法이다.

추구하는 方法이 學問的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획득되는 知識은 學問的인 知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學問的知識은 經驗的으로 蓄積된 지식인 상식과는 다른 것이다.

圖書館學의 方法論에 대해서 岩嶽敏生 등이 共編한 新·圖書館學 へソドブック에서 歷史的方法論, 社會的方法論, 情報學的方法論, 比較法, 統計的方法 등을 소개하고 있는 중에 比較法을 열거해 주고 있다(岩嶽敏生等編 1984, 9-14) 그리고 부사와 하터(Busha and Harter)에 의한 方法論들은 實驗的研究(Experimental Research), 서베이연구(Survey Research), 歷史的研究方法(Historical Research), 오퍼레이션리서치(Operation Research), 統計的方法(Statistical Methods), 그리고 附加的方法論中 比較法등을 열거해 주고 있다.

그들 또한 方法論中 하나로 比較法을 論하고 있는데 이는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發展시키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必要한 方法論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圖書館學의 國際 및 比較研究에서 진지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연구방법론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 歷史

的方法 2) 서베이방법 3) 事例方法 4) 統計的方法, 5) 實驗的方法 6) 混合方法 7) 比較方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Krzym 1983., 330) 크리즈 역시 方法論중 하나로 比較法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런데 研究를 시작할 때에 예비적단계로서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에서 研究를 위한 主題를 選定할 때에 다음의 提案들이 유익할 것이라 하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 提案들은 1) 觀心이 있거나 經驗한 분야나 地域을 설정하는 일, 2) 關心分野의 이전연구의 중복 또는 結論의 의심스럽게 보이는 데이터의 선정(博士學位論文으로 一般的으로 인정할수 없는 그러한 연구), 3) 先行研究 또는 博士論文의 최종 장을 檢討하고 다시 研究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발견하는 일, 4) 우수한 假說이 설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既存研究의 데이터분석, 5) 現實務의 假說을 선정하고 그것을 試驗하는 일, 6) 國際 및 比較圖書館學文獻을 철저히 讀書하는 일등을 권고해 주고 있다(Goldher 1969, 33-36).

상술된 여러가지의 연구방법론중에서 比較的方法論을 圖書館學에 導入하여 圖書館學의 모든 問題를 分析하는 方法이 즉 比較圖書館學的 側面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圖書館學에서 比較方法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比較’의 意味부터 比較圖書館學的 立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톤(Danton)은 ‘比較’란 要略컨데, 相異성과 類似性(difference and similarities)을 相互 直接的인 並置로 두어야 하고 相異성은 社會環境의 모든 적절한 諸部面에서 解明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比較란 相異한 社

會의 圖書館現象에 관한 情報가 아니라-比較研究를 形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相異한 社會 圖書館現象의 性格을 決定짓는 그리고 圖書館現象間 相異性의 原因이 되는 現象, 條件, 要因을 探究하는 것이 다라고 說明해 주고 있다(Danton 1973, 86). 그리고 포스킷도 그의 比較圖書館學 定義중에서 科學的研究方法으로서 比較研究法의 利用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그는 效果的인 比較研究를 위해서는 研究하고자 하는 現象을 여러가지 實例를 찾아내고, 分析하여,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들이 무엇인가를 發見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要素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存在環境속에서 全體와 서로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발견해 내고, 그 行動方法을 관찰하므로써 그 속에 존재하는 類似성과 相異性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가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Foskett 1976, 2). 이러한 觀點에서 比較研究의 基本的인 目的은 解明 혹은 原因에 대한 知識의 探究와 原則의 探究에 있는 것이다.

최대의 目的과 궁극적인 目標은 우리들이 觀察하는 諸現象의 諸關係에 대한 知識에 있고, 그러한 諸現象의 열거나 諸現象에 대한 記述에 있는 것은 아니 다라고 단톤은 주장하고 있다.

(Danton 1973, 80) 요약컨데, 유효적절한 一般化(法則化, 通則)와 原則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目標와 함께 內在되어 있는 類似성과 相異성을 理解하고 相異性의 原因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심소바(Simsova)는 圖書館學에서 比較研究가 可能的한 諸事項에 대해 다음과 같은 要素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 1) 한 文化에 있어서 한 圖書館과 그 環境과의 關係에 대한 형태의 비교
- 2) 相異한 文化에 있어서 한 圖書館과 그 환경간의 關係에 대한 여러 형태의 비교
- 3) 여러 圖書館과 그들 環境간의 關係에 대한 일반화
- 4) 한 文化에 있어서 圖書館內 제 關係의 形態比較
- 5) 相異한 文化에 있어서 도서관내 제 關係의 여러 형태의 비교
- 6) 一般的으로 圖書館에 있어서 제 關係의 형태에 대한 일반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imsova and Mackee 1970, 5-6).

또한 단톤은 社會科學에서 말하는 比較研究의 필수불가결한 要素(비교도서관학 포함)로서

- 1) 通社會學的要素 2) 資料의 並置(the juxtaposition of data) 3) 實際的인 比較 4) 解明의 追求등을 열거하면서 比較研究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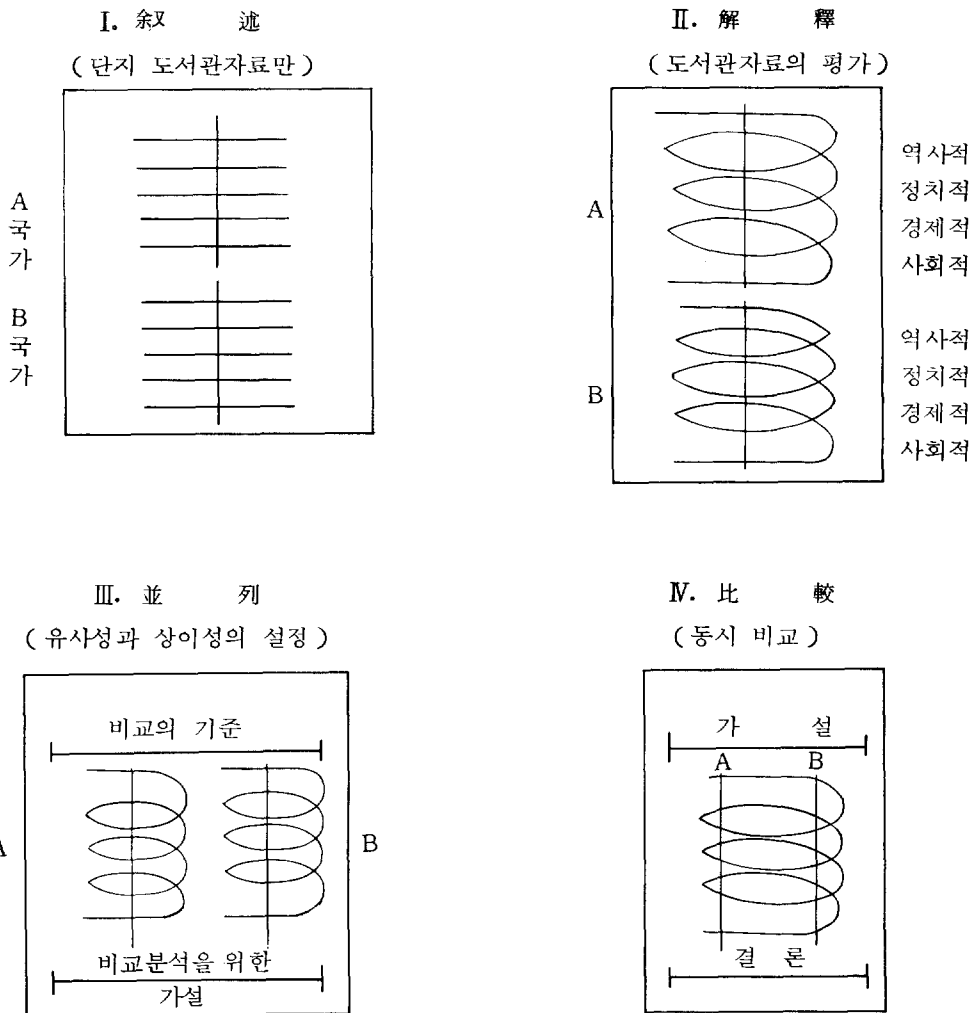
- 1) 많은 分野에서 比較研究는 發展과 母分野(parent discipline)를 이해하는데 팔 목할만한 중요한 공헌을 해준다.
- 2) 다른 分野에서 比較研究에 대한 확대는 성실한 學者的地位를 成就시켜 주며, 공헌도를 지속시켜 주어 그들이 요구하는 科學的方法을 활발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 3) 그들의 試圖가 어떻든 기타 分科學에서 發展은 科學的方法의 채용에 항상 밀접하게 活動하게 되며, 觀察된 現象을 遂行하는 解析, 原理, 法則을 위해 探索하게 되며, 그 현상이 어떻게 또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4) 推論的으로 만일 건전하게 발전된다면, 도서관학에서 비교연구는 전체로서 도서관학에 대한 유사한 혜택의 영향이 기대된다(Danton 1973, 26)

브래디(Bereday)는 教育學에서 채용된 比較方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약간 수정을 가해 유사한 比較方法은 圖書館研究에 적용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比較方法論들은 1) 叙述法

(description), 2) 解析法(interpretation), 3) 並列比較(juxtaposition) 4) 同時比較(comparison) 方法등이 그것들이다.

(Bereday 1964, 27) 상기의 4가지의 比較方法들이 대부분 비교도서관학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교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 比較方法의 段階들을 圖式으로 나타내 보면 圖表II와 같다.



<도표II> 比較圖書館學의 方法論(Krzym 1974, 338)

敘述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우 또는 地理的인 지역에서 圖書館現象에 관련된 情報의 體系의인 진술이며, 2번째 단계인 해석은 社會科學側面에서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포함되며, 並列比較에서는 연구자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설을 公式化할 목적으로 점차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위치시킨 것이며, 마지막으로 同時比較는 둘 혹은 그 이상인 경우 또는 地理的地域에서 圖書館教育에 관련된 資料의 分析的인 提示로서 하나의 統合된 報告書를 제출하게 하는 단계가 된다. 이러한 비교의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敘述法

比較方法的 敘述段階는 研究되고 있는 圖書館現象에 대한 관련된 資料를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해 주는 <도표II-I>의 형식이 그것이다.

研究者에게 資料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主題의 考案된 예비적인 論題의 概要는 論理的이어야 한다. 方法은 기존방법이나 또는 연구자 자신이 고안한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고안한 방법을 제공하여 연구된 연구논제의 요소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方法이 考察되면 研究者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것을 口述形式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현 또는 제시는 體系의인 개요로 정교하여야 하며, 表로도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資料가 추출된 書誌的 情報源의 리스트로 완전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된 동일한 예비적 체크리스트의 기술적 정보를 조직하는데 또한 일련의 자료를 구술형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의 도서관교육의 연구를 고려해볼 때 자료수집을 위한 동일한 12 항목이 또한 연구의 기술적분과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가 된다. 즉,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의 도서관현상이 미리 설정된 공통의 항목에 따라 지역마다 서술하여 그것에 서술의 근거가 된 자료리스트를 부가시키게 된 것이다.

크리즈(Krzysz)가 이러한 점에 알맞는 항목으로 제시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圖書館의 歷史
- 2) 各各 地域에 있어서 도서관의 목적이나 기준
- 3) 圖書館과 自治制와의 關係
- 4) 圖書館資料의 소장상향(관종별)
- 5) 도서관자료의 범위와 성격(자료형태별)
- 6) 圖書館奉仕
- 7) 圖書館職員의 問題(자격, 대우, 인원수)
- 8) 圖書館發展의 諸樣相(圖書館振興政策, 圖書館網, 圖書館協力, 圖書館의 財源, 圖書館施設, 圖書館職員에 관한 地域的인 問題, 國際協力등)
- 9) 各各 地域의 特徵의 要約
- 10) 典據文獻리스트

이상 10가지 항목을 들 수 있지만,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현상의 성격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전개나 취사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2 解釋法

解釋은 社會科學側面에서 表로 作成된 데이터를 分析하는 것으로 <도표II-II>의 유형이다. 理想的으로는 관련정보가 연구되고 있는 현

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일치되도록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의 教育이나 經驗한 主題分野에 따라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社會科學的 側面에서 각각의 圖書館現象의 解明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을 分析하는 것이다. 다음의 개요는 컬럼비아대학교의 코스중 도서관학 발전에 관련된 일련의 요소들이다.

- 1) 各 地域의 圖書館現象에 관한 歷史的 및 政治的 要因들
- 2) 地理 및 기후
- 3) 人口의 要素
 - ① 상주총인구 ② 人種 및 國民集團 ③ 性別과 연령층(성인, 학령아동, 6세미만)
 - ④ 教育의水準 ⑤ 도-농간의 분포율
- 4) 經濟的 要素(국가 및 평균수입, 고용문제, 직종등)
- 5) 文化的 要素(언어와 방언, 주종교, 기타로서 인종 및 성별의 차별)
- 6) 정부구조(국가, 주, 지방): 중앙집권화의 정도, 세원 및 세원액수
- 7) 教育的 要素(교육제도, 성인 및 기본 교육의 기간 및 프로그램)
- 8) 커뮤니케이션의 실존형태(신문의 발행부수, 도서 및 잡지의 발행 및 유통, 필름 제작, 라디오 및 텔레비전)(Simsova and Mackee 1970, 400-401)

이러한 각 項目의 檢討에 포함되어 지는 것은 예컨대, 파키스탄과 필리핀의 圖書館教育研究에서 연구자는 다음의 4가지 요소적 측면에서 관련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1) 歷史的 側面, 2) 政治的 側面, 3) 經濟的 측면, 4) 社會的 側面을 분석하는 것이다.

4.3 並列比較

比較方法的 제 3 단계인 병렬비교는 비교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社會科學的 要素를 점차적으로 끼워서 넣는 보고서로서 병렬비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目的을 지닌다. 1) 比較된 데이터에서 類似點과 相異點을 發見해 내는 일이며, 2) 그 類似點과 相異點으로 부터 필요한 가설을 형성하는 일이다. 예컨대, 파키스탄과 필리핀지역에서의 圖書館教育의 比較研究는 이전에 열거한 12개의 要素를 그 국가의 歷史政治, 經濟, 社會的 要素와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렬비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 적합한 비교항목을 먼저 선택하여 그 각 항목에 서술과 해석에서 기술한 내용을 조직하여 기술한 것이다.

소재는 앞의 2 단계의 검토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표현은 다르다. 검토에서 부터 가설과 그 가설의 증명을 위해 또는 그 가설에 의해 檢討을 권장하기 위한 단계없이 순서가 文章化된다.

지금까지의 3 단계는 다음의 동시비교를 전개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것이다. 研究者 自身이 데이터수집과 그것에 의해 類似點과 相異點의 確認, 여기에서 導出된 兩 地域의 特性에 대한 順序와 사고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內部的인 절차인 것이다.

즉 並列이란 比較될 國家들에 대한 資料를 比較基準의 順序에 의해 리스트화한 것을 말한다.

比較에 先行되는 이 並列에는 概念과 假說을 統合하고 比較의 形態를 구하기 위해 比較對象의 각국가에 관한 資料를 나란히 보여주는데 그 目的이 있다. 병렬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資料가 모두 最終比較에 利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관련성여부를 다시 調查하여 資料를 재 선정

하게 되는 것이다.

병렬에 뒤이어 比較가 수행되는데 이는 並列過程에서 유도된 假說을 證明하기 위한 몇개의 國家 또는 모든 國家의 同時考察과정이다. <圖表Ⅱ-Ⅲ>과 같은 形式의 圖式이 그렇기 때문이다.

結論적으로 이 並列段階는 類似點과 相異點들을 나란히 排列된 情報속에서 찾아내고 比較의 要素를 밝히고 比較되어야 할 資料를 다시 밝히고 假說을 다시 說明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4.4 比較(同時比較)法

比較는 比較方法의 마지막 段階로서 研究의 結論을 報告하는 것으로 <圖表Ⅱ-Ⅳ>가 그 示례이다.

實際로 研究者는 이 比較의 過程에서 얻어지는 情報만을 利用者들에게 提供하게 되는 것이며, 앞의 敘述, 解釋, 並置의 三段階는 이 比較의 結果를 얻기 위한 研究者 自身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결국 利用者가 읽는 部分은 이 比較部分인데 이것은 研究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즉 앞의 3단계에서 얼마만큼 充分하고 明確한 研究調査者가 뒷받침이 되었느냐에 따라 이 比較部分의 成敗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比較研究者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國家들을 比較하는 과정에서 圖書館現象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假說과 結論을 提示하게 되며, 흔히 이러한 것들을 綜合적으로 정리하여 關係분야의 圖書館理論을 公式化하는데 利用되기도 하며, 또한 關係법령을 제정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比較는 並列과 明確하게 區分되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몇몇 다른 國家에서의 圖書館學에 관한 記述의事項의 並列로 끝내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比較研究(同時比較)의 궁극적인 目的은 因果關係에 관한 知識을 얻는 것이므로 因果關係의 分析은 假說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假說은 추측이 아닌 아주 明白하게 提示된 것이어야 한다.

5. 結 論

이상과 같이 圖書館學에서의 比較研究의 方法論(Methology of Comparative Study)에 대해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그 特性들을 요약할 수 있다.

- 1) 比較法の 原理는 學問의 研究方法論的 입장에서 ‘比較의 方法’이라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社會學중 ‘獨立된 學問’으로 취급하는 이원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比較方法論은 하나의 學問的 研究方法論이지 學問의 性格을 띤 科學이라고 하기에 는 아직 未洽한 점이 많다.
- 2) 여기에서 方法論이라고 하는 것은 圖書館現象을 學問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다. 比較란 요약컨데 相異性과 類似性을 相互直接的인 병치로 두어야 하고 相異性은 社會環境의 모든 적절한 諸部面에서 解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比較란 相異한 社會의 圖書館現象에 관한 情報가 아니라 - 比較研究를 形成하기는 하지만 - 오히려 相異한 社會, 圖書館現象의 性格을 결정짓고 圖書館現象間的 相異性의 原因이 되는 現象, 條件要因을 探究하는 것이다.

- 3) 上記의 原理에 입각하여 比較法을 圖書館學研究方法으로 採用할 때 比較圖書館學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比較圖書館學은 相異한 狀況下에서 (대개는 다른 국가) 일어나는 圖書館發展, 實際 또는 問題點들을 體系的으로 分析하되 이를 研究하고자 하는 狀況에서 發見되는 적절한 歷史, 地理,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要因 및 기타 決定的인 背景要因을 감안하여 高찰하는 것이다.
- 4) 이러한 性格을 지닌 比較圖書館學은 1) 의 現象과 같은 問題로서, 하나의 學問인 가, 主題인가, 方法論인가, 아니면 하나의 主題的 性格을 띤 것인가등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比較方法論을 圖書館學에서 도입하여 圖書館學의 發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研究的 方法論에 가깝다고 하겠다.
- 5) 比較圖書館學의 名稱의 發展現象의 問題로서 比較圖書館學, 國際(比較) 및 比較(國際) 圖書館學, 國際圖書館學, 世界圖書館學으로 이어지는 名稱으로 발전 되어 왔으나 名稱의 變경으로 인한 各 學問研究分野의 主題가 變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研究的 추세에 부가된 발전적인 現상으로 볼 수 있다.
- 6) 圖書館學에서 比較研究方法論은 i) 敘述法(description), ii) 解析法(interpretation), iii) 並列方法(juxtaposition), iv) 比較(同時比較)法(comparison) 등이 있다. 敘述法은 研究되고 있는 圖書館現象에 대한 相關된 資料를 이야기형식으로 提示해 주는 方法이며, 解析法은 社會科學側面에서 表

로 作成된 데이터를 分析하는 方法論이며, 並列方法은 比較되는 데이터와 相關된 社會科學의 要素를 점차적으로 끼워서 넣는 方法론이다. 즉 比較된 데이터에서 類似點과 相異點을 發見해 내는 일과 그 類似點과 相異點으로 부터 필요한 假說을 形成하는 方法論이며, 마지막 同時比較의 方法論은 比較方法의 마지막 단계로서 研究의 結論을 도출해 내는 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참 고 문 헌〉

- Bereday, G. Z. F. 1964. Comparative method in Edu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ryce, James. 1901. Studies in History and Jurisprudence. New York.
- Busha, C. H and Harter, S. P. 1980.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 ship: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ampbell, H. C. 1970. Internationalism in U. S. Library School Curricula,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 : 184
- Carrol, F. L. 1982. World Librarianship.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33. New Mork. Marcel Dekker.
- Castberg, Frede. 1960. Freedom of Speech in the West Oslo and New York.
- Chandler, G. 1971. International Librarian ship; Surveys of recent Develop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n Advanced Librarianship. "Submitted to the 1971 IFLA pre-session Seminar for Developing Countries sponsored by Unesco." London, Library Association.
- Collings, D. G. 1971. Comparative Librarianship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 New York, Marcel Dekker.
- Collings, Dorothy. 1958. Meeting the needs of foreign students in Library Journal 83: 3064.
- Dane, Chase. 1954. The Benefits of Comparative

- Librarianship in Australian Library Journal 3:39.
- Danton, J. P. 1977. Definition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ibrary Science in Harrey, J. F. ed. Comparative International.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 Danton, J. P. 1973. The Dimensions of Comparative Librarianship. Chicago, ALA.
- Darwin, C. 1874. The Descent of men. New York.
- David, Rene 1950. Traite Elementaire de Droit Civil Compre. Paris.
- De Francisci. 1921. Riv. int. Filosofia del Diritto, I.
- Foskett, D. J. 1979.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ibrarianship. Bangalore, The W Q Tuge press.
- Foskett, D. J. 1965. Comparative Librarianship in Robert L. Collison, ed. Progress in Library Science. London, Butterworths.
- Gutteridge, H. C. 1949. Comparative Law, 2nd ed. Cambridge, England.
- Hall, Jerome. 1963. Comparative Law and Social Theory. Bloomington, Indiana Yvonne mavr.
- Hamson, C. J. and Plucknett, T. F. T. 1952. The English Trial and Comparative Law. Cambridge, England.
- Harvey, John F. ed 1977.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of Library Science. Metuchen, The Scarecrow press.
- Harvey, J. 1973. Towards a Definition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ibrary Science.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 5.
- Havard-Willians, p. 1972. Interantional Librarianship Unesco Bull. Libr., Voll. XXVI, no. 2 March-April.
- Jackson, Miles M. ed. 1970.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ibrarianship. Westport, Lon., Greenwood.
- Krzys, Richard. 1974.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tud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 Kyzys, R. and Litton, G. 1983. World Librarianship: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Marcel Dekker.
- Lambert, Edouard. 1903. Fonction du Droit Civil Compare Paris.
- Locy, W. A. 1908. Biology and Its makers. New York.
- Parker, J. S. 1974. International Librarianship, a Reconnaissance.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6.
- Pedersen, Holger. 1931. Linguistic Sc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trans. John Spargo. Bloominton, Ind.
- Qureshi, N. 1980.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ibrarianship :on analytical approach, UJI SLAA. Vol. II. No. I.
- Rheinstein Max, 1952. "Teaching Tools in Comparative Law." Am. Jour. Comp. L., I
- Rheinstein, M 1938. "Teaching Comparative Law." U. of. Chi. L. Rev., V.
- Rovelstad, M. V. 1978. 'A New international librarianship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Unesco Bull. Libr. Vol. XXXII. No. 3 Max-June.
- Sable, M H. and Deya, 1970. Outline of an Introductory course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ibrarianship in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 : 187-92
- Schnitzer, Adolf F. 1961. Vergleichende Rechtsleher. Basel, Switzerland.
- Shores, Louis, 1970. Comparative Librarianship: a theoretical approach in Miles MTackon ed.,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ibrarianship. Westport, Conn; Greenwood.
- Shores, Louis. 1966. Why comparative Librarianship. Wilson Library Bulletin 41.
- Simsova, S. & Mackee, M. 1970. A Handbook of Comparative Librarianship. London. Clive Bingley.
- Stone, F. F. 1951. "The End be to served by Comparative Law" Tulane L.Rex. XXV.
- Thompson, A. 1972. Towards International Comparative Librarianship in Journal of Librarianship 4 : 68.
- White, C. M. 1964. Bases of modern Librarianship. Oxford, Pregamon.
- Whitney, W. D. 1875. The Life and Growth of Language : An Outline of Linguistic Science New York.
- Yntema, Hessel. 1956. "Comparative Legal Research," L. Rev., LIV
- 남태우. 1983. 비교도서관학의 이론.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창설 20주년 기념논집. 서울, 중앙대도서관학과
- 岩 敏生等編. 1984. 新. 図書館學 ハンドブック. 東京, 雄山閣.